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 **일천번제헌금**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3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로마서 16장 1절 ~ 16절		
월요일	로마서 16장 17절 ~ 27절	목요일	에레미야 27장 1절 ~ 11절
화요일	에레미야 26장 1절 ~ 15절	금요일	에레미야 27장 12절 ~ 22절
수요일	에레미야 26장 16절 ~ 24절	토요일	에레미야 28장 1절 ~ 1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송솔기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에 덴 : 최원지 앤 젤 : 이난수	
	바탕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공희라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솔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욱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철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0. 8. 23.

예배소서 6장 13~17절	의의 호심경	설교: 이진우 목사
----------------	--------	------------

두 번째 감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호심경, 곧 의”가 됩니다. 호심경은 로마 군인의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손상이 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심장이 있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상징적 의미가 큼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전투 중에 착용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겁니다. 호심경은 싸우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증가시키면서 전투의 자신감을 더해 줍니다. 군인의 사기를 높여 주고 두려움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는 영혼의 감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는 영혼의 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 혹은 인간을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합니다. 또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라 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갑옷과 함께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의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쉬네”로서 의의 실천적인 용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으로써 의를 갖추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며, 그 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는 구원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누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인간이 스스로 갖추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복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대에서 심판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만족할 의를 갖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될 수 있다는 해석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고 무죄한 삶은 영벌이라는 심판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완벽한 삶과 순종을 통하여 드러진 완벽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의의 기준을 갖추는 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의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의의 기준에는 율법을 지킨 결과만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의 순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의인데, 이는 전가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잃어버려 없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이 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 얻게 됩니다. “복음의 의”는 전가 받은 것이기에 더 세심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칭의의 과정을 걸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은 세상에서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곧 영생입니다. 육체의 심장이 생명이 잉태 될 때에 뛰기 시작하듯이 영혼의 심장은 우리가 거듭날 때, 즉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을 때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함이 선언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갓 태어난 성도에게 이식되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장이 잘 작동해야 생존할 수 있듯이 영혼의 심장이 잘 박동해야 영혼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칠 때 작동을 멈추지만, 의의 심장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시작된 작동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적인 심장이 박동하면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할수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은 더욱 강렬해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옷을 삼는다는 표현에는 전신 감주와 입는 것과는 다른 단어 “호블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옷을 입은 결과는 본문의 의의 감주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죄를 그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이를 거룩함을 지향하는 모습과 연결했습니다. 의의 심장은 성도가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박동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의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그 결과와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에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실에 거룩함이 없다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영혼의 심장도 힘차게 박동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의심장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불의의 기배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전한 순종과 전심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들 사이에는 공의롭고 올바르며, 공평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주간도 더욱 강하고 튼튼한 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더욱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하며 많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6 - 35

2020. 08.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삶” [사도행전 12장 24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가정에배로합니다

오전 11시 30분

인도: 가 족 대 표

묵도
(Silent Prayer)

인도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양
(Praise)

찬송가 325(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갈 이

대 표 기 도
(Prayer)

가 족 대 표

성 경 봉 독
(Scripture)

에배소서 6장 13~17절[신약P.317]

인도자

설교
(Sermon)

전신갑주 04
“의의 호심경을 가진 성도의 삶”

인도자

찬양
(Praise)

찬송가 370(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갈 이

주 기 도
(Lord's Prayer)

다 갈 이

찬양에배

가정에배로합니다

수요기도회

가정에배로합니다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예배안내]
정부의 방침과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당분간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중단합니다.
보내드리는 URL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휴가]
이필레 전도사님께서 8월 31일(월)~9월 4일(금)까지 휴가입니다. 영육간에 쉼이 있어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착용, 체온체크, 손 소독, 방역록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 약수대신 목례를 부탁드립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담임목사 동정

- 총회GMS 이사회 참석 9월 3일(목) 오전 11시 총회GMS 본부

◎ 교우소식

- 입원 : 방석태 장로 오류동 한방병원
- 입원 : 김정자 권사 힘찬병원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정소
이번주						
다음주						

9월 순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6일)	홍정훈 집사	배경철 장로	박복순 권사	박권제 장로	채만기 집사	박복순 권사
2주(13일)	김형국 집사	임만순 장로	윤 숙 권사	최성현 장로	김경엽 집사	윤 숙 권사
3주(20일)	방원식 집사	박권제 장로	배숙자 권사	윤영준 장로	최상걸 집사	배숙자 권사
4주(227일)	채만기 집사	최성현 장로	최귀남 권사	강영성 장로	박종삼 집사	최귀남 권사
예배안내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